

# 2023년 화제의 인물

## 국내

### ■ 개요

2023년 한해도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화제를 불러 모으며 뉴스의 중심에 등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참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돼 42일간 '혁신 수술'을 집도했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과 대립각을 세우던 끝에 신당 창당 행보를 본격화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비대위원장을 맡아 여당의 총선을 이끌게 됐고, 해병대 채 모 상병이 순직한 사건을 조사하던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되면서 뉴스의 중심이 됐다.

데뷔 10주년을 맞은 방탄소년단(BTS)은 만형 진부터 막내 정국까지 전원 병역 의무 이행에 돌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불교계 실세 자승스님이 돌연 입적해 불교계가 충격에 빠졌고 가수 현미와 배우 윤정희 등 오랜 시간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스타들이 세상을 떠나 팬들에게 슬픔을 안겼다.

'기생충'으로 월드스타 대열에 올랐던 배우 이선균은 마약 투약 의혹을 받던 중 스스로 생을 마감해 많은 충격을 안겨줬다.

소설가 한강은 2016년 영국 부커상에 이어 2023년 프랑스 메디치상을 받으며 한국문학의 역량을 해외에서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현대차그룹을 글로벌 톱3 궤도에 올려놓은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 '목발 투혼'을 보여준 최태

원 SK그룹 회장, 프랑스 프로축구 최강팀 파리 생제르맹(PSG)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 역대 최고의 역사(力士)에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변신한 장미란도 주목받았다.

이밖에 전두환 일가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손자 전우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원대 투자사기 혐의가 드러난 전청조도 입길에 올랐다.

### ■ 정치

#### • 국민의힘에 메스 든 인요한 혁신위원장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참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돼 42일간 '혁신 수술'을 집도했다.

김기현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은 그는 취임 일성으로 "와이프와 아이 빼고 다 바뀐다"며 통합과 희생을 키워드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

로 한 6가지 혁신안을 당에 제시했다.

인 위원장이 내세운 1호 혁신안 '대사면'으로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해제가 이뤄졌지만,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등 주류 인사의 불출마 혹은 혐지 출마를 요구한 '희생' 안건으로 지도부와 갈등을 빚었다.

그는 지도부가 희생 안건을 의결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공천 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도 요구했으나 즉각 거절당했다.

인 위원장은 결국 "우리는 50% 성공했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더 기다리겠다"는 말과 함께 2주가량 일찍 혁신위 활동을 종료했다.

### • 당과 대립각 세우다 신당 창당 행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직에서 불명에 퇴장한 후 당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다가 결국 12월 27일 탈당, 창당 작업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칭 '개혁신당' 명칭으로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는 2011년 12월 출범한 '박근혜 비대위'에 합류해 거물급·중진 경쟁자들을 제치고 2021년 '30대 최연소 제1야당 대표'에 올라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당내 친윤(친윤석열) 그룹과 파열음을 낸 끝에 징계로 당 대표에서 물러난 그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을 비판했다.

정치권은 일정한 청년 지지층을 보유한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선언한 만큼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이미 제3지대로 나온 '새로운선택' 금태섭 전 의원, '한국의 희망' 양향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이 거론되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 • 잇따른 설화에 조기 퇴장한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 민주당을 한참 달구던 시점인 6월 15일 당의 쇠신을 이끌 구원 투수로 투입됐으나 정작 본인이 잇따라 설화를 빚은 끝에 '조기 퇴장'했다.

당내 초선 의원들을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저하 학생'에 비유한 데 이어,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가 계파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과거 중학생 아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게 자기(아들) 생각이었다. 되게 합리적이(않으냐)"라고 해 당 전체가 '노인 폼하' 논란에 휩싸였다.

위원장의 설화로 동력을 상실한 혁신위는 당초 9월 초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지만 8월 10일 쓸쓸히 활동을 종료했다. 김 전 위원장은 활동을 마치며 전당대회에서의 대의원 투표 배제,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감점 강화 등의 혁신안을 내놓아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 • '해병대 순직'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7월 19일 해병대 채 모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사건을 조사하던 책임자다.

박 전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사건 조사보고서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뒤,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같은 날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되고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됐으며, 11월에는 해병대 군사경찰 보직에서도 해임됐다.

그는 국방부로부터 혐의자 적시 범위를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8월 말 폭로했으며, 12월 7일 항형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중앙군사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박 전 수사단장은 법정에서 "저는 28년간 해병대 생활을 하며 상관의 명령에 절대 충성하고 올바른 길을 가려 노력했다. 부디 사건의 본질을 봐달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자신에게 적용한 항명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 • 법무부 장관에서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변신한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사에서 관료(법무부 장관)로, 이번엔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한 전 장관은 12월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돼 2024년 4월 국회 의원 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됐다.

한 위원장은 장관 시절부터 야당 의원들과 날을 세우며 대립하는 정치적 면모를 자주 보여 정치권에서는 그의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11월 17일 대구에서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려할 때 서울행 열차 시간을 미루며 시민들의 기념 촬영 요청에 응했고, 같은 달 21일 대전을 방문해서는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 나는 나머지 5천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며 총선 출마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에서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하며 "승리를 위해 용기 있게 헌신 하겠다"며 총선 승리에 배수진을 쳤다. 이로써 한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 정국에서 여야 사령탑으로 마주 서게 됐다.

● 일가 비자금 의혹 폭로한 '전두환 손자' 전우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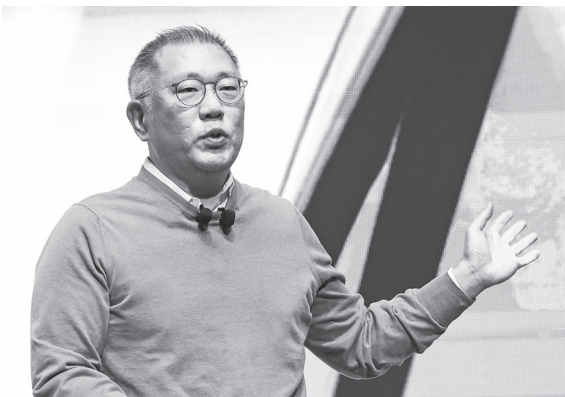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는 2023년 3월 SNS를 통해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해 주목받았다.

전 씨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한다.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라고 했고, 자신의 부친 재웅 씨와 관련해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출처 모를 검은돈을 사용해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작은 아버지이자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재만 씨가 와이너리 사업을 한다며 “검은돈의 냄새가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달 미국에서 귀국한 전 씨는 광주에서 5·18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사죄했으며 5월에도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전야제를 찾았다.

전 씨는 미국 체류 중 MDMA(엑스터시)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로 12월 22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 경 제

●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톱3' 올려놓은 정의선 회장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 뒤를 이어 '그룹 1인자'가 되어서 3년째인 2023년에는 '정의선 효과'가 더욱 두드러진 해였다.

세계 자동차 업계가 '전동화'라는 대전환기를 맞은 현시점에 정의선호(號)는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대차그룹은 연 매출 200조원 이상의 명실상부 글로벌 '톱3'로 도약했다.

2022년 글로벌 시장에서 684만5천대를 팔아 도요타, 폭스바겐에 이어 사상 처음 3위를 차지한 데 이어 2023년에도 730만4천대를 판매, '톱3'에 이름을 올렸다.

수익적 성과도 돋보였다. 현대차·기아의 2024년 누적 합산 영업이익은 26조7천억원을 넘어섰다. 정 회장이 그룹 수장이 된 2020년 4조원 대에서 6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국내 영업이익 순위에서도 만년 1위였던 삼성전자까지 제치고 2024년은 현대차와 기아가 선두를 꿰찼다.

두 회사는 연간 수출액 규모에서도 국내 1~2위를 휩쓸었다.

정 회장은 불발로 끝나긴 했지만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과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준공식 참석 등 글로벌 행보도 잦았다. 10월 울산에 연간 20만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착공하며 전동화 분야를 선도했고, 영국 찰스 3세 국왕 즉위 이후 한국인으로는 처음 대영제국훈장을 받는 영광도 안았다.

● 엑스포 유치전 '목발 후환'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스스로 '모자 3개'(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공동위원장)를 썼다고 말할 만큼 바쁜 한 해를 보냈다.

특히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SK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면 가동하고, 자신도 개최지 최종 투표를 앞둔 11월까지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각국 주요 인사들을 만나는 등 총력을 쏟았다.

최 회장이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해외 출장을 위해 이동한 거리는 지구 둘레로 17바퀴에 해당하는 약 70만km에 달했다. 막판에는 이동 과정에서 대기 시간을 줄이고자 항공기 이코노미석을 이용하기도 했다.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엑스포 개최 후보국 4차 프레젠테이션에는 테니스를 치다가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에도 목발을 짚은 채 참석해 '목발 후환'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2023년 SK그룹 회장 취임 25주년을 맞은 그는 지정학 리스크,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 가속화 등으로 대내외 경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변화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며 2016년 제기한 '서든 데스'(sudden death·돌연사) 위험을 거듭 거론하기도 했다.

●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수염 민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11월 6일 카카오 경영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떡튀' 논란이 지속되던 2022년 3월 이사회 의장에서 사임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직후인 10월 말부터 매주 비상경영회의를 개최하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도 만들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시스템이 부도덕하다고 질타하는 등 경영·인적 쇠신 요구가 지속되자 전면에도 나섰다.

11월 13일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진행된 제3차 비상경영

회의에서는 카카오 전신인 아이위랩 창업 무렵인 2006년부터 트레이드 마크처럼 기른 수염을 밀고 말끔해진 모습으로 등장해 초심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쇠신 노력에도 11월 15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흥은택 카카오 대표 등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등 본인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12월 11일에는 2년 10개월 만에 직원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13일에는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를 차기 카카오 대표로 내정해 카카오 사상 첫 여성 CEO 시대를 예고했다.

## ■ 문화·스포츠

### • 세계 최고 역사(力士)에서 체육행정가로 변신한 장미란 문체부 2차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

'세계 역대 악물의 시대'에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실력만으로 역대 최고 역사(力士)로 우뚝 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6월 한국 체육을 책임지는 행정가로 새 출발했다.

국가대표를 지낸 엘리트 스포츠인이 차관에 선임된 건 2013년 '한국 사격의 전설' 박종길, 2019년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이상 문체부 2차관)에 이어 장 차관이 세 번째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는 최초다.

만 39세에 문체부 제2차관으로 임명된 장 차관은 1977년 서석준 경제기획원 차관(당시 만 39세) 이후 역대 정부 부처 최연소 차관 타이 기록도 세웠다. 아울러 2006년 만 48세에 차관에 오른 박양우 전 문체부 장관의 기록을 훌쩍 넘어 역대 최연소 문체부 차관의 타이틀을 달았다.

장 차관은 올림픽에서 금·은·동메달을 1개씩 따고, 세계 선수권대회에서는 4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등 당대 최고의 역대 선수였다.

바벨을 내려놓은 뒤에도 자신이 설립한 장미란재단을 통해 체육 꿈나무들을 지원하고, 용인대 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쓰는 등 한국 역대 및 스포츠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왔다.

#### • 데뷔 10주년에 군 공백기 돌입한 방탄소년단

2023년 데뷔 10주년을 맞은 K팝 대표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만형 진부터 막내 정국까지 전원 병역 의무 이행에 나섰다.

2022년 12월 진, 2023년 4월 제이홉, 12월 RM·뷔·지민·정국이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다. 슈가는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방탄소년단은 2013년 6월 데뷔한 이래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빌보드 200'과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수차례 오르는 등 'K팝 최초' 기록을 써 내려갔다. 이들은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을 받고, 까다롭기로 이름난 '그래미 어워즈'에서도 3년 연속 후보로 올랐다.

방탄소년단은 2022년 앤솔리지(선집) 음반 '프루프'(Proof) 이후 1년여에 걸쳐 개성이 뚜렷한 솔로 활동을 펼쳐왔다. 그중 지민과 정국은 각각 솔로곡 '라이크 크레이지'(Like Crazy)와 '세븐'(Seven)으로 미국 빌보드 '핫 100' 1위를 기록했다.

방탄소년단은 멤버들이 전역한 이후인 2025년 팀 활동 재개를 예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9월에는 소속사 빅히트뮤직과 두 번째 재계약도 체결했다.

#### • 분신 입적으로 충격 안긴 조계종 실세 자승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8년간 지내고 불교단체 상월결사를 만들어 활동하며 불교계 실세로서 존재감을 유지해 온 자승스님이 분신(焚身)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입적했다.

자승스님은 11월 29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사 요사채(승려들이 거처하는 집)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입적했다. 요사채 안에서 불탄 시신이 발견됐는데 DNA 감정 결과 자승스님의 법구로 확인됐다.

화재 이틀 전 "나는 대학생 전법에 10년간 모든 열정을 쏟아 부을 생각"이라고 말하는 등 포교에 강한 의욕을 보인 터라 자승스님의 입적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의문을 안겼다.

고인이 칠장사에 타고 간 차에서는 "검시할 필요 없다. 제가 스스로 인연을 달리할 뿐이다. CCTV에 다 녹화돼 있으니 번거롭게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는 메모가 발견됐다. 서울의 숙소에는 "끝까지 함께 못해 죄송합니다. 종단의 미래를 잘 챙겨주세요"라는 당부의 글이 있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자승스님이) 정토 극락 니르바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항상 추구하셨기 때문에 그런 순간을 스스로 맞이하셨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불교계 시민단체인 정의평화불교연대는 "자살을 소산공양으로 미화한 것은 금도를 한참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 • 명곡 남기고 세상 떠난 '영원한 디바' 현미

1960년대 한국 가요계를 선도한 가수 현미(본명 김명선)가 4월 4일 8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현미는 1938년 평양에서 8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 한국전쟁 1·4 후퇴 때 남한으로 내려왔다. 1957년 미8군 무대에서 가수 김정애·현주와 함께 결성한 3인조 여성 보컬 '현시스터즈'로 데뷔해 66년간 힘 있는 목소리와 거침없는 입담으로 많은 팬에게 사랑받았다.

현미는 1962년 첫 음반에 수록된 '밤안개'로 인기를 누렸고, 작곡가 고(故) 이봉조와 콤비를 이뤄 '보고 싶은 얼굴'·'떠날 때는 말없이'·'몽땅 내 사랑'·'무작정 좋았어요' 등의 히트곡을 냈다.



▲ 가수 현미

발성이 얼마나 찌렁찌렁했는지 출세곡 '밤안개'를 녹음할 때 마이크에서 두세 걸음 떨어져 불렀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현미는 2007년 데뷔 50주년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80년이든 90년이든 이가 확 빠질 때까지 노래할 것"이라며 "은퇴는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되면 할 것이다. 멋지고 떳떳하게 사라지게 참모습"이라고 말했다.

• **알츠하이머 투병하다 떠난 은막의 스타 윤정희**

1960~1980년대 은막을 장식한 영화배우 윤정희(본명 손미자)가 1월 프랑스 파리에서 7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10여 년 동안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이었다.

1944년 부산에서 태어난 윤정희는 강대진 감독의 '청춘극장'(1967)으로 데뷔하면서 일약 스타로 떠올랐고, 문희·남정임과 함께 당대를 대표하는 여배우 트로이카로 꼽혔다.

주요 작품으로는 김수용 감독의 '안개'(1967)를 비롯해 '장군의 수염'(1968), '신궁'(1979), '저녁에 우는 새'(1982), '위기의 여자'(1987), '만무방'(1994) 등이 있다. 출연작이 한국영상자료원 집계로만 280편에 달한다.

맑고 고운 인상의 윤정희는 탁월한 연기력으로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며 스크린에 한국인의 꿈과 현실을 그려냈다. 1976년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결혼한 뒤에도 작품 활동을 계속한 그는 66세이던 2010년 이창동 감독이 연출한 '시'의 주인공 미자 역을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은 이 영화가 그의 마지막 작품이다.

사후인 10월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공로상을 받았다.

• **캄보디아서 유명 달리한 '토크쇼 스타' 서세원**

1980~1990년대 여러 인기 토크쇼를 진행했던 코미디언 서세원이 4월 20일 6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979년 TBC '개그콘테스트'로 데뷔한 그는 각본을 위주로의 공트가 주를 이뤘던 연예계에서 특유의 입담을 내세운 토크쇼 대중에게 사랑받았다.

MBC '청춘행진곡'(1984~1992)의 코너 '서세원의 스타데이트', '서세원 쇼'(1996~2002)가 큰 인기를 끌었다. 이 프로그램들의 흥행은 한국 방송사에서 토크쇼가 정착하는 밑거름이 됐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서세원은 1988년 제24회 백상예술대



▲ 코미디언 서세원

상 남자 TV예능상, 1995년 KBS 코미디대상 대상, 1998년 SBS 연기대상 MC상 등 각종 상을 휩쓸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세금 포탈과 추가 조작 등 각종 형사 사건에 연루돼 여러 사건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2014년에는 배우자인 방송인 서정희를 오랜 기간 폭행해온 사실이 알려졌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혼한 뒤 23세 연하의 음악가와 재혼해 캄보디아로 이주한 서세원은 현지에서 사업을 이어가던 중 한인 병원에서 링거를 맞다가 숨졌다.

• **영국 이어 프랑스 평단까지 사로잡은 소설가 한강**

소설가 한강은 2016년 영국 부커상에 이어 2023년 프랑스 메디치상의 외국문학 부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제주 4·3의 비극을 다룬 한강의 장편 '작별하지 않는다'는 11월 메디치상 외국문학 부문을 수상했다. 한국 작가가 프랑스의 주요 문학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1958년 제정된 메디치상은 공쿠르상, 르노도상, 페미나상과 함께 프랑스 4대 문학상으로 꼽힌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2023년 페미나상 외국문학 부문 최종후보에도 오르는 등 문학 감식안이 까다롭기로 이름난 프랑스 평단과 독자들에게서 호평 받았다.

이 소설은 한강이 광주 5·18의 참상을 다룬 '소년이 온다'에 이어 제주 4·3의 비극에 눈을 돌려 오랜 취재 끝에 완성한 작품이다. 상처를 섬세하게 보듬어주는듯한 작가 특유의 시선과 시적인 문장이 돋보인다.

한강은 수상 후 귀국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소설을 써오면서 제일 기뻐던 순간이 2021년 4월 말 '작별하지 않는다'를 완성한 순간이었다"며 "워낙 오래 걸리고 힘들게 썼다"고 돌아봤다.

• **영화 '기생충' 출연 배우 이선균 사망**

2020년 미국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른 영화 '기생충' 출연으로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배우 이선균씨가 12월 27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48세.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그는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999년 비쥬의 '관찰아' 뮤직비디오로 데뷔한 그는 여러 뮤지컬과 방송, 영화계를 넘나들며 정상급 배우로 성장했다.

MBC 드라마 '하얀거탑'(2007), '커피프린스 1호점'(2007), '파스타'(2010), MN '나의 아저씨'(2018) 등에 출연하며 스타로 떠올랐다.

그는 2018년 아이유와 함께 주연한 '나의 아저씨'로, 특히 '기생충'에 출연하며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누렸다. 2023년 5월 '짐', '탈출:프로젝트 사이런스' 2편이 칸영화제에 동시 초청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 세계무대서 활약하며 한국 축구의 '현재'가 된 이강인

이강인에게 2023년은 한국 축구의 '미래'에서 '현재'로 우뚝 선 한 해였다.

그는 7월 스페인 마요르카를 떠나 프랑스 프로축구 최강팀 파리 생제르맹(PSG) 유니폼을 입고 선수 생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 네이마르(알힐랄)가 거쳐 갔고 프랑스 국가대표 킬리안 음바페 등이 뛰는 '호화 군단' PSG에서도 주전으로 자리 잡은 이강인은 손흥민(토트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과 더불어 한국 축구의 간판으로 입지를 굳혔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목에 걸며 병역 혜택을 받게 돼 유럽 무대에서 '룡린'할 발판도 마련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대표팀의 '막내'였던 이강인은 3월 시작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체제의 국가대표팀에선 더 중용되며 존재감을 키웠다. 특히 10월 13일 튀니지와 평가전 멀티골로 A매치 데뷔 득점을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10~11월 A매치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4골 3도움)를 작성해 한국 축구의 2023년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 아시아 내야수 최초로 골드 글러브 수상한 김하성



▲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내야수 김하성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 3년 차에 타율(0.260), 홈런(17개), 타점(60개), 도루(38개), 안타(140개) 모두 자신의 한 시즌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샌디에이고의 불박이 내야수로 자리매김했다.

2022년까지 유격수로 뛰다가 2루수로 보직을 바꾼 뒤에도 견고한 수비로 팀의 내야 안정에 크게 기여했고, 1루수를 제외한 내야 전 포지션 수비가 가능한 만능선수로 입지를 굳혔다. 안정적이며 창의적인 수비 실력을 인정받은 그는 시즌 후 포지션별 최고 수비수에게 주는 골드 글러브(내셔널리그 유틸리

티 야수 부문)를 역대 아시아 내야수로는 처음으로 받았다.

또 공수에서 남긴 강렬한 인상 덕분에 미국야구기자협회의 최우수선수(MVP) 투표에서 10위 표 5장(총점 5점)을 받아 추신수(현 SSG 랜더스), 류현진에 이어 역대 한국인 빅리거로는 세 번째로 MVP 투표 득표자가 됐다.

• 남현희 재혼남으로 소개된 뒤 '수십억대 투자사기' 드러난 전청조

전청조 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가 드러났다.

전 씨는 10월 월간지 인터뷰를 통해 재벌 3세이자 부상으로 은퇴한 승마 선수, 청년 사업가 등으로 소개됐으나 성별 의혹과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의혹 등이 일파만파 확산했다. 이후 그가 최근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고발이 잇달아 접수됐다. 수사 결과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미국 나스닥 상장사 대주주로 행세하며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북한

• 북한 4대 세습 거론되는 김주애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김주애(왼쪽)

김주애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로 고작 10세 남짓한 나이이지만 '4대 세습'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물이다.

2023년 내내 김주애는 군 장성 숙소, 건군절 열병식, 체육 경기 관람, 평양 주택 착공식, 미사일 시험발사, 해군사령부, 군사정찰위성 축하연, 공군사령부 등 부친의 주요 시찰 현장에 따라다녔다.

해군사령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장, 공군사령부 정치위원 등이 상관 대하듯 김주애에게 거수경례하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다. 또 9월 정권수립 열병식 중계방송에선 주석단 의자에 앉은 김주애에게 박정천 노동당 군정지도부장이 한쪽 무릎을 꿇고 귓속말하는 장면이 나왔다.

12월 1일 보도된 공군사령부 방문 현장에선 시범 비행 참관 중 김주애가 김정은보다 앞에 서 있는 채로 촬영된 사진이 외부에 그대로 공개되기도 했다.

통일부는 “김정은이 딸을 지속해서 부각하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 세습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다소 서두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김주애가 부친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군인들이 “백두혈통 보위”를 외친 것 역시 세습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 국제

### ■ 개요

두 개의 전쟁이 지구촌을 흔든 한해였다. 새로운 인물이 끊임없이 부상했고 부침도 심했다.

우크라이나와 2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심복’으로, 용병 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이었던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무장반란을 일으켰다. 의문의 비행기 추락사로 비극적 최후를 맞으며 한 편의 드라마 같았던 인생을 마감했다.

하마스의 기습에 ‘피의 보복’을 선언한 이스라엘에서는 극우파와 손잡고 가가스로 재집권에 성공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 절멸을 기치로 전시내각을 진두지휘하고 있지만, ‘포스트 전쟁’ 국면에서 그를 기다리는 안팎의 정치적 현실은 녹록지 않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며 중신집권의 길을 열었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아르헨티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 경제학자 출신 아웃사이더 하비에르 밀레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이변이 연출됐다.

냉전 시기 데탕트(긴장완화)를 이끌었던 미국 외교계 거목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치적 라이벌로 통했던 리커창 전 총리, 생전 스캔들 제조기로 불렸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는 유명을 달리하며 역사의 또 한 페이지가 넘어갔다.

챗GPT 출시로 인공지능(AI) 열풍을 일으키며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해임 소동 끝에 복귀, AI 산업화 경쟁을 예고했다.

문화계에선 미국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올랐고, 말레이시아 출신 배우 양쯔충(양자경·미셀여)은 아시아계 최초 오스카 여우주연상 수상자가 됐다.

역경 속에서도 연구를 놓지 않았던 ‘불굴의 이단아’ 커털린 커리코는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노벨상의 영예를 안으며 인류를 코로나19의 늪에서 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 “핵융합 같은 에너지”... ‘스위프트노믹스’, 사회·경제 현상된 테일러 스위프트

인기 절정의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는 2023년 미국 및 월드 투어 콘서트로 수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일으키며 ‘스위프트노믹스’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그가 순회공연을 하는 곳마다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사회·경제적 현상’에 가까운 인기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 미국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스위프트의 팬덤을 뜻하는 ‘스위프트’(Swiftie)는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OED)이 선정하는 ‘올해의 단어’ 후보에 올랐다.

이러한 인기로 힘입어 그는 10월 세계 부호 순위를 산정하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공식적으로 포함됐다.

순자산은 11억 달러로 1조4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음악과 공연만으로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미국 CNN 방송은 평가했다. 순회공연인 에라스 투어 매출은 10억5천만 달러(약 1조3천700억원)로 사상 최초로 10억 달러 고지에 올라섰다.

스위프트는 미 시사주간지 타임의 2023년 ‘올해의 인물’에도 올랐다. “핵융합과 같은 에너지를 분출했다”는게 선정 이유였다. 명문 하버드대를 비롯, 미국 대학들이 그의 음악 세계 등을 다루는 강의를 잇달아 개설하면서 그의 파워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

### ● 돌연 해임→화려한 복귀 ‘반전’...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

미국 인공지능 개발사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인 샘 올트먼은 대화형 AI 서비스 ‘챗GPT’의 성공을 이끌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과를 중퇴하고 2005년 위치기반 소셜미디어 스타트업인 차린 그는 2011년 유명 스타트업 창업육성업체 와이콤비네이터에 합류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회장직에까지 올랐다.

그는 2015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링크드인 공동 창업자 리드 호프먼 등과 ‘인류를 이롭게 하는 AI’ 개발을 목표로 오픈AI를 설립했다.

2018년 머스크의 이탈 등 부침 속에서도 오픈AI는 올트먼의 지휘 아래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MS)의 10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고, 2022년 11월 출시한 챗GPT로 전 세계에 AI 열풍을 일으켰다.

올트먼은 더 적극적인 AI 개발과 상용화를 꾀하다 AI의 위험을 간과한다고 본 이사회와의 알력으로 11월 18일 전격 해임되며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MS를 비롯한 투자자들과 임직원 대다수가 그의 편에 서자 이사회는 닷새 만에 백기를 들었고, 올트먼은 화려하게 컴백했다. AI의 위험성을 둘러싼 철학적 갈등이 표면화한 이 사건이 올트먼의 복귀로 마무리되면서 AI 산업화 경쟁이 가속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 냉전 국제질서 재편 이끈 美 외교 거목 헨리 키신저



▲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독일 태생의 미국 외교관으로, 2차 세계대전 후 냉전 시대 세계 질서 재편을 주도한 전략가 헨리 키신저가 11월 29일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그는 1960년대 말~1970년대 중반 리처드 닉슨 행정부와 제럴드 포드 행정부에서 국무장관 등을 지냈으며 퇴임 후에도 미국의 외교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특히 1971년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해 이듬해 닉슨 미국 대통령과 마오쩌둥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죽의 장막'을 걷어내고 미중 수교의 토대를 닦았다.

키신저는 옛 소련과 군비축소 등 데탕트를 이끌었고 1973년 4차 중동전쟁 때는 '셔틀 외교'라는 말을 탄생시키며 종전에 기여했다. 베트남전 종식 노력으로 1973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국익만 존재할 뿐"이라는 생전 유명한 어록처럼 그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칙도 무시하는 냉혹한 현실주의자 면모로 많은 비판을 받는 등 명암도 엇갈렸다.

베트남전 때 북베트남에 타격을 주기 위해 중립국이었던 캄보디아를 비밀리에 폭격해 최소한 5만 명의 민간인 사망을 초래했고, 칠레 아옌데의 정부를 무너뜨린 유혈 군사 쿠데타를 지원했다.

키신저는 1975년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도 여러 발언을 하며 관심을 보였다.

● '푸틴의 요리사'에서 번역자로...비극적 최후 맞은 예브게니 프리고진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잡범 출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부상했다가 그 등에 칼을 꽂으며 루비콘강을 건넜다.

프리고진은 1980년대 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외식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면서 푸틴 대통령과 친분을 쌓았다. 크렘린궁의 연회 케이터링을 맡아 '푸틴의 요리사'라는 별명을 얻었고 2014년 용병업체 바그너그룹을 창설하면서 '총건'으로 거듭났다.

바그너그룹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과 시리아·리비아·수단 등의 분쟁에 개입하며 세력을 키웠고, 고문, 학살 등 잔학행위로도 악명을 떨쳤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프리고진은 교도소 출신 병력을 내세워 최격전지 바흐무트 점령 등 전과를 올렸으나, 군 수뇌부를 비협조적이고 무능하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등 극심한 갈등 끝에 6월 23일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

러시아 본토로 진격하다 처벌 면제와 벨라루스 망명을 조건으로 1일 천하로 회군했다. 그 직후 푸틴 대통령과 면담하고 러시아와 벨라루스, 아프리카 등을 자유롭게 오가며 신변 우려를 불식시키는 듯했다. 하지만 반란 두 달 만인 8월 23일 전용기 추락으로 심복들과 함께 사망, 앞서 의문의 죽음을 맞은 푸틴 정적들의 전철을 밟았다.



▲ 예브게니 프리고진

● 극우 괴짜 경제학자에서 대통령으로...‘아르헨 트럼프’ 하비에르 밀레이

하비에르 밀레이는 11월 19일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 투표에서 좌파 집권당 후보를 역전승으로 누르고 권좌에 오르며 파란을 일으켰다. 12월 10일 임기 4년의 대통령에 취임, 대격변을 예고했다.

극우성향의 '괴짜' 경제학자 출신으로 정치권의 '아웃사이드'에 가까웠던 그는 기성정치권에 대한 민심 이반을 등에 업고 혜성처럼 등장했다. 밀레이는 140%대의 연평균 인플레이션과 40%대 빈곤율로 신음하는 아르헨티나의 폐소화를 달리로 대체하는 달리화 도입, 중앙은행 폐쇄, 장기 매매 허용 등 다소 과격한 공약을 내세워 "새 판을 짜자"라는 전략으로 지지층을 결집했다.

그는 선거기간 전기톱을 들고 유세를 펼치는 등 파격적 정책과 기행으로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당선 일성으로 "아르헨티나의 재건이 시작된다"고 선언한 밀레이 대통령은 12월 12일 급격한 폐소화 평가절하와 보조금 삭감 등을 골자로 한 10대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는 극약 처방을 했다. 막후실세로 꼽히는 여동생 카리나 밀레이를 규정까지 바꿔 비서실장에 앉혔다.

● 쓸쓸하게 생 마감한 '시진핑의 라이벌' 리커창

시진핑 국가주석의 라이벌로 불렸던 리커창 중국 전 총리는 총리직에서 물러난 지 7개월여 만인 10월 27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리 전 총리는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2013년부터 2023년 3월 퇴임하기 전까지 10년간 총리직을 수행했다. 강력한 총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시 주석의 정치적 경쟁자였던 그에게 실권이 허락되지 않으면서 ‘식물 총리’로 불릴 만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는 총리 재임 기간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는 등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시 주석에게 집중된 권력의 벽을 넘지 못했다.

리 전 총리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경제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그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전역에서는 애도 물결이 이어졌고,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안후이성 허페이 한 골목은 생화가 산을 이루기도 했다.

‘양쯔강과 황허는 거꾸로 흐를 수 없다’(長江黃河不會倒流)라거나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다’(人在做 天在看) 등 권력을 견제하는 의미를 담은 생전 발언이 화제가 됐다.

### • ‘가상화폐 천재’서 ‘수십조 사기극’ 주인공으로 추락한 권도형

권도형 씨는 전 세계 가상화폐 가치의 폭락 도미노를 불러온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로,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그는 한때 ‘한국판 일론 머스크’로 불리며 가상화폐 업계의 총아로 떠올랐으나, 실리콘밸리 최대 사기극의 주인공 엘리자베스 홈스 전 테라노스 CEO와 비교되는 처지가 됐다.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권씨는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잠적했으며, 도피행각 11개월 만인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출국하려다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 현지에 구금됐다. 한미 양국 검찰이 각각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 권 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권 씨가 실제로 미국에 인도된다면 종신형인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뉴욕 검찰은 2월 그를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한미 요청에 따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권 씨의 구금 기간을 2024년 2월 15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 • 아시아계 최초 오스카 여우주연상 거머쥔 양쯔충



▲ 2023년 오스카 여우주연상 수상자 양쯔충(양자경)

양쯔충(양자경)은 3월 12일 제95회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에서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로 아시아계 배우 최초로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는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이 다중 우주를 넘나들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독특한 코믹 판타지 영화다. 양쯔충은 극중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온 이민 1세대로, 세탁소를 운영하는 에벌린을 연기했다.

말레이시아의 부유한 화교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발레를 배웠고 1983년 미스 말레이시아로 뽑힌 후 배우가 됐다. 홍콩으로 넘어가 ‘예스마담’ 시리즈, ‘폴리스 스토리 3’, ‘프로젝트 S’ 등을 통해 1980~1990년대 액션 스타로 성공했다. 이후 할리우드로 진출한 그는 ‘007 네버다이’, ‘와호장룡’, ‘게이샤의 추억’, ‘쿵푸팬더 2’ 등을 통해 무대를 확장했다.

한갑이 넘어 당당히 할리우드 중심에 선 그는 “여성 여러분, 여러분들은 황금기가 지났다는 말을 절대 믿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수상소감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 • ‘하마스 소탕’ 진두지휘 베나민 네타나후, 정치생명은 위태



▲ 베나민 네타나후 이스라엘 총리

이스라엘 최장수 총리로 우파의 상징인 베나민 네타나후는 2022년 12월 극우파를 끌어들이는 초강경 우파 연립 정권으로 가까스로 재집권에 성공했다.

그는 1995~1999년 첫 임기에 이어 2009년 3월 이후 4차례 연속 12년 2개월간 집권했다가 2021년 6월 실권한 지 1년 반 만에 총리직을 되찾았다.

뇌물 수수, 배임 등의 부패 혐의로 실각했던 그는 재집권 후 사법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입법을 강행, 격렬한 시위와 야권의 반발, 지지율 하락을 겪었다.

네타나후는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이후 ‘피의 보복’을 선언, 전시 내각을 이끌고는 있지만 하마스의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으로 궁지에 몰렸다.

특히 안보 실패의 책임을 군과 정보기관에 돌리는 발언은 공분을 샀고,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가 커지면서 국제사회에서도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 우방인 미국 정가에서도 네타나후 총리의 정치생명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확산하는 등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그의 정치적 입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종신 집권 길 연 '21세기 술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5월 28일 대선 승리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2003년 첫 집권 이후 2033년까지 최장 30년에 달하는 사실상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다.

그는 2023년 초 21세기 최악의 재난의 하나로 기록된 강진으로 초기 대응 실패 논란과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비판에 직면, 대선 목전에서 집권 20년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나 결선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자신이 '21세기 술탄'임을 증명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 성공은 중동과 유럽, 서방과 반서방의 국제질서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혔다. 그는 재집권 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각종 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세계무대에서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흑해 곡물 협정이 이어지도록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다.

● **꺾이지 않는 집념 '백신의 어머니' 커털린 커리코**



▲ 2023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한 생화학자 커털린 커리코

커털린 커리코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선구자로, 2023년 10월 2일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커리코는 1955년 헝가리 시골 마을에서 가난한 푸줏간 집의 딸로 태어났다.

mRNA에 매료돼 연구에 매달렸던 그는 헝가리에서 연구실 예산이 끊기자 1986년 미국행을 택했다. 차를 팔아 마련한 돈 900파운드(약 148만원)를 두 살배기 딸의 꿈 인형 배에 몰래 넣어왔다.

그는 미 템플대를 거쳐 펜실베이니아 의대로 자리를 옮겼지만 입지는 좁은 위태로웠다. 미국 내 mRNA 연구 열기가 사그라지면서 그는 연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 시절 암 진단까지 받았다.

커리코는 승진 대신 연구직 강등과 연봉 삭감을 택하면서도 mRNA 연구를 놓지 않았다.

저명한 연구자 드루 와이스먼과의 우연한 만남은 그에게 전환점이 됐다. 와이스먼은 커리코의 연구비 문제를 해결해줬고, 커리코는 20여 년간의 연구 끝에 mRNA 백신의 핵심 기술 개발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다. 와이스먼은 커리코와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 **스캔들과 함께 잠든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전 총리

'스캔들 제조기'로 불렸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전후 이탈리아 최장수 총리로,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6월 12일 86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1960년대 건설업으로 부를 축적한 뒤 1980년 민간 방송 채널들을 인수하며 언론 재벌이 됐다. 1986년엔 명문 축구팀 AC밀란도 인수했다.

그는 자수성가 기업가 이미지, AC밀란의 인기, 언론 영향력 등을 바탕으로 승리해, 정계 진출 몇 개월 만에 1994년 '벼락 총리'가 됐다. 이후 20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9년간 총리를 지냈다.

그러나 집권 기간 성 추문과 비리, 마피아 커넥션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2011년 미성년자 성 추문 의혹과 이탈리아 재정 위기로 총리직에서 불명예 퇴진했고, 2013년에는 탈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상원의원직을 박탈당했다. 2022년 9월 조기 총선에서 10년 만에 상원의원에 당선되며 정치 일선에 복귀했으나,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